

2018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경상북도 경주시
- 양남지역아동센터



2019. 1

강*선

양남지역아동센터로 출발하기 전, 팀원들 모두가 이화봉사단 경험이 처음인 탓에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우리 말을 잘 따라줄까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다. 그러나 4박 5일 간의 봉사 기간 동안 팀원들과도 친해지고 아이들과도 어울리며 우려한 것과는 달리 순조롭게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 비록 스무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통제하고 집중시키는 일은 어려웠지만 일정을 끝내고 나니 아이들과 정이 들어 헤어지기 아쉬웠다. 이전의 단발성의 봉사 활동과는 달리 팀을 짜서 몇 박 며칠 간 봉사를 한 것은 처음이었으나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게 되어 다행이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화봉사단에 지원하고 싶다.

신*아

나에게 이화봉사단은 대학 입학 후 첫 정식 봉사활동이었다. 봉사에 관심은 많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봉사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는 않았었다. 그래서 이화봉사단은 조금 다를 것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지원을 했는데, 2018년에 가장 잘 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준비 과정 내내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이 설레기도 했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막상 센터에 도착해 아이들을 보니 부담감보다는 잘 해야겠다는 자신감이 생겨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다. 그리고 센터 상황에 맞게 일정이 조정되고 계획과 다르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도 있었지만 거듭되는 회의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실 틈 없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힘든 걸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로 뿌듯했다. 벅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배울 점도 많았고,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에게서 긍정적인 기운을 얻어갈 수 있었다. 4-5일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이화봉사단을 통해 많은 걸 배우고 느끼며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작년에 이화봉사단을 참여하고는 적극 추천한다는 친구를 따라 이번 겨울 이화봉사단을 신청하게 되었다. 팀원 모두 이화봉사단 활동이 처음이었기에 기획서를 제출하고 매 피드백마다 수정할 부분이 많았다. 그래도 아이들 연령을 고려해서 초등학생들의 관심사를 고민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니 우리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센터에 도착하고 나서 오전 시간에는 방과후를 가는 학생이 꽤 있어서 일정 변동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받았다. 그 때는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아닌 아이들을 놀아주거나 방학 숙제와 공부를 도와주는 식으로 진행되었고, 오전 프로그램은 점심시간 이후로 미루어 일정을 조정했다. 오후 프로그램의 시간을 넉넉하게 계획한 덕에 일정 조정이 쉬웠다. 미리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뜻하지 않은 변수를 고려해 계획하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장난을 치거나 잘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차차 우리도 적응을 하고, 서로 힘들지 않게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다보니 어느새 적응하여 기관의 아이들과 정이 들었다. 우리가 기획한 프로그램에 미흡한 점도 많았겠지만 즐겁게 활동에 임해준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고 또 보고싶을 것 같다.

이*조

아동센터에 처음 봉사를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많이 미숙했던 점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화봉사단에서 기획한 프로그램과 조원과 기획했던 프로그램을 5일 동안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과, 조원들과 협력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다. 5일동안 아이들과 지내면서 정도 많이 들어서 다음에도 봉사 활동에 꼭 참여하고 싶다.

전*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해서 매우 보람 있는 활동이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아이들과 5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친해질 수 있는 점이 좋았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목이 아플 정도로 계속 크게 이야기 한 적도 많았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한 말도 잘 들어줘서 놀랐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한 적이 있기도 했지만 팀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잘 해결할 수 있었다.